

“행자 생활하는 지금 그 첫마음 잃지 말라”

지묵 스님

“불일암佛日庵 마루에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면 법정 스님이 ‘어이, 초상권 있어 함부로 찍지마!’ 그러셨는데, 말이나 행동이 묘했던 어른신들을 따라가요. 이곳 당호를 불일암으로 한 까닭도 어른 스님 영향이지요. 좋은 이름이에요.” 보림사 뒤 자그마한 불일암 법당에 앉자마자 카메라부터 꺼내드는 사진작가에게 지묵 스님이 차분한 한 잔 하라며 던진 말씀이다.

출가 전, 법정 스님 글을 보고 ‘스님들도 글을 쓰시는구나.’ 생각했던 지묵 스님, 송광사로 출가했다. 송광사에서는 보름마다 삭발하고 목욕도 하고 별식으로 찰밥을 하는데, 도반 행자들과 암자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찰밥을 가져다드리면서 법정 스님과 처음 현품대조를 했다. “미역국하고 찰밥은 음식궁합이 잘 맞아요. 내가 국을 끓이는 소임을 맡았는데, 솔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물에 불린 미역을 살짝 볶다가 끓이면 담백하면서도 구수해요. 인사를 올렸더니 ‘행자 생활하는 지금 첫 마음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고 하셨어요.” 그 날 지묵 스님 눈길을 끈 것은 벽에 걸린 고졸古拙한 추사 선생 족자였다.

불일암 다실 ‘수류화개실’로 명명 ‘수류화개’… 스님 정취 드러난 화두 날카롭고 냉정해 보였던 스님. 이야기 들을수록 인간미 넘쳐

“靜坐處 茶半香初정좌처 다반향초 妙用時 水流花開묘용시 수류화개”
 “고요한 선방, 차는 반 모금, 향은 첫 향기. 어우렁 더우렁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불일암 다실을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이라 하고, 말년을 보냈던 강원도 토골을 수류산방(水流山房)이라고 할 만큼 수류화개는 무수유 못지않게 스님 정취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살아있는 화두다.

“처음 보였을 때 눈매가 날카롭고 냉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얘기를 들을수록 도타운 인간미가 느껴졌어요. 벽장에서 숙옷과 양말을 꺼내주시는데, 지금은 물자가 흔하지만 그때는 뭇돈지 모자랄 때라 실낱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뒤 효봉 스님 추모제 날 계를 받고 나서 도반들과 불일암에 올라가 인사드렸다. “무거운 가사장삼을 끌고 절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별말씀을 안 하시더니 내게 ‘법명이 뭐라고 했어?’ 물으셔서 지묵입니다. 그랬더니 ‘좋이고 먹이 평생 안 떨어질 사람이네.’ 그래서 스님, 지필묵하고는 닮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야, 두고 봐!’ 그러셨는데 참말, 좋아하고 먹은 딸



은사인 법흥 스님의 부탁으로 법정 스님과 사제의 연을 맺은 지묵 스님에게 법정 스님은 항상 일등후원자였다. 사진은 법정 스님을 그리며 당호를 ‘佛日庵’이라 불린 보림사 뒤 불일암 법당 앞에서 있는 지묵 스님.

어지지 않네.”

행자 생활을 마치고 비구계를 받은 지묵 스님은 불국사 선방에 다니다 법어사 조실 지유스님이 원효암에 계시는 때 장좌불와를 하고 달마어록과 선문촬요(禪門撮要)를 배웠다. “선문촬요(禪門撮要) 전권을 공부했어요. 달마어록이나 원만한 것은 책에 잘못된 곳까지 짚어주셨어요.”

공부마치고 광주민주항쟁이 나던 해, 법정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니 서장(書狀)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끝을 다 맺지 못했어요. 광주 5월 항쟁도 있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좋은 스승들에게 공부하는 영예를 누리고 고마워요.” 법정 스님은 지묵 스님한테 세 가지는 못 당하겠다고 했다. “첫째는 수제비, 내가 일러드린 대로 한껏 솜씨를 내봐도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여. 둘째 돌담 쌓기, 조계산 돌을 주어가 불일암 올라가는 돌계단을 쌓았는데, 구산 스님이 ‘다른 데는 이번 태풍에 길이 파고 무너져 내렸는데 여기는 관촬네’ 그러시니까. 법정 스님이 ‘지묵 스승자 특수 공법으로 정성껏 쌓아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셨어요. 셋째 전각, 법정 스님 낙관은 석정 스님, 무용 거사, 수안 스님 그리고 내가 관 20여 과(額)를 더해 백여 과가 됩니다. 글씨는 스님이 쓰고 나는 칼질만을 했어요. 깎아서 보여드리면

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다. 법정 스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큰 절로 내려와 은사 법흥 스님을 찾은 지묵 스님, 짐짓 목소리를 깔면서 말했다. “스님! 제가 미국에 갑니다. 도가 있으면 돈을 보여 주십시오.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보여 주십시오.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했다더니 우리 스님이 ‘야, 았다. 천불이다. 아이고, 천불이다. 천불!’ 하면서 천 달러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쓰지 말고!” 불교 종단에 이렇듯 해학이 넘치고 정감어린 사제가 또 어디 있으랴. 더구나 상좌가 다른 스님을 좋아한다고 당신이 직접 찾아가 부탁하는 일은 보통 도량으로는 어렵고 없는 일이다. 이 자리가 아니면 도타운 스승과 제자 정을 어디에 담을까 싶어 지묵 스님 당부를 어기고 말았다.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내면서 법정 스님에게 교정을 봐달라고 했을 때 법정 스님은 지묵 스님을 데리고 갔다. “어른 빈다고 법정 스님이랑 같이 가서 장삼을 다리미질을 해서 깨끗하게 입고 올라갔더니, 성철 스님이 입던 옷을 벗어주면서 ‘요걸 입고 보면 잘 보일 것이여.’ 그러셔서 병풍 뒤에서 법정 스님과 내가 새 옷을 벗어놓고 같이입었어요.” 당시 체취가 묻은 옷을 입고 뜻은 잘 헤아려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경봉 스님 책도 그렇게 벗어요. 명정 스님이 부탁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사들이고 큰 스님들 책 가운데 법정 스님 손을 거치지 않은 거의 책이 없어요.”

얼마 뒤 법정 스님이 누가 번역해 달라고 부탁한 지장경을 지묵 스님에게 건네면서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우리고전을 읽어보고 되도록이면 독송하기도 좋게 번역을 하라고 일렀다. “그때 고전을 한참 소리 내서 읽고는 했더니, 스님 덕분에 운율을 맞추는 걸 알았어요.” 법정 스님 지시로 오관개도 다들은 지묵 스님. ‘계공다소량파래치(計功多少量彼來處), 촌기덕행전결응공(村己德行全缺應供), 방심이과 탐등위중(防心離過貪等爲宗), 정사양약위료형고(正思良藥爲療形枯), 위성도업승수차식(爲成道業膺受此食)’을 운율을 살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라고 풀었다. 특히 첫 구절을 직역하면 ‘이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이 서려 있는지 떠올리며’ 인데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라고 했다.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려는 깊은 법정 스님 정취가 담긴 번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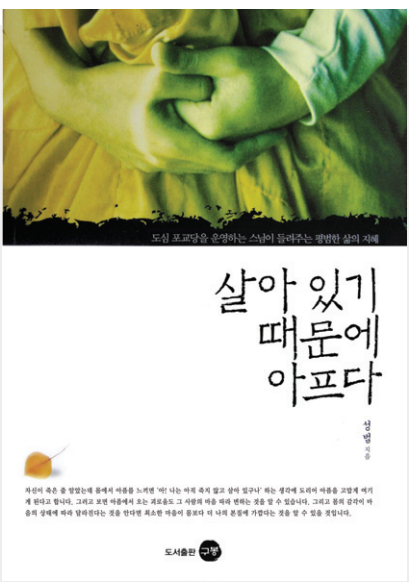
법정 스님 말씀을 따라 프랑스 파리 길상사에 간 지묵 스님, 한국과는 달리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차를 한 대 사달라고 말씀드렸다. 법정 스님은 공부하는 사람이 차있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법정 스님이 귀국하실 때 드공공항 게이트 지나면서 손짓을 했다. ‘뭘 빼뜨리셨나?’ 다가가는 지묵 스님에게 ‘가방 좀 잘 봐봐!’ 했다. 뜬금없이 무슨 말씀인지 납득이 가지 않은 지묵 스님은 가방을 열어버리지 않도록 간수를 잘라하는 말씀으로 무심히 흘려들었

‘춘향전’ 등 고전 읽고 <지장경> 독송 좋게 번역 하라’ 법정 스님 지시 車 못사게 하시더니 가방에 수표를… 장흥사에서 신도들이 시식·재 집전

“조금 힘이 빠져서, 다시”, “종군. 균형이 잡혔어. 약간 옆으로 빠져서 멋지지 않아?”, ‘날 일기 지는 그냥 해를 그려서 원 안에 점만 찍어봐’ 그러시는데 디자인 감각이 있으셨어요. 스님은 목수 일을 잘하시고 나는 돌 일과 전각을 잘하니가 취미에 따라 일을 했지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법정 스님과 지묵 스님 인연은 법흥 스님이 다리를 놓았다. “아무래도 내 상좌 지묵이가 스님을 좋아하는 것 같소.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스님이 좀 가르쳐주세요. 심각하게 그러고 가셨다는 거여. 그러면서 은사스님 정성을 생각해사라도, 공부 잘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법정 스님은 내가 해외여행을 할 때 대개 왕복 비행기표 끊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일등 후원자였어요.”

지묵 스님이 미국에 가려고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불일암에 인사드리러 올라갔을 때 법정 스님은 다락에서 당시 손때 묻은 <신체호 전집> 상하권을 꺼내주면서 ‘어디 가더라도 한국을 잊지 마라. 어머니가 문둥이여도 버려서는 안 되듯이, 내 나라가 아무리 썩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저자 성범 스님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견안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복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랑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가 있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외불법당에 2만인등과 영등으로 법화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법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액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외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외불 (열반상)

성지순례를 외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번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최대층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층과된 신비한 영형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중남기암문물계 제3710 지명)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 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법정 스님을 닮아서일까, 주지 자리를 한사코 거절하던 지묵 스님은 문중 어른 스님들의 권유로 가지선문 보림사 주지를 맡아 '보림결사'를 선언하며 교육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다. 몇 해 동안 유럽을 두루 다니고, 중국이며, 인도로 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도 한참을 지난 뒤에 시골농가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선농일을 실천하며 여려야 선원을 할 때 낡은 여행 가방을 버리려다 앞에 붙은 바스켓을 탈탈 터는데 봉투가 하나 툭 떨어졌다. 봉투 안에서 차를 사서 조식해서 타고 다니라는 법정 스님 당부 말씀과 수표가 나왔다. "자동차 사라고 넣어두신 돈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복장이다 그 연기(緣起)를 써놨어요. 어르신이 자동차 산다고 그러니까 꾸짖기만 하고 가지더니 떠나면서 가방에다가 봉투를 넣어놓고 가셨는데, 나중에 버리려다가 보니까 큰돈이 나와서 이 부처님을 모시노라고" 지금은 보림사 불일암에 앉아계시는 부처님이야기다. 짐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다니다가 수레에 싣고 타고 가니 편했을 사람들이, 삶속에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 편리하고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담아 법륜이라 했다던가. 자동차가 부처님으로 나투어 법륜을 굴리다.

"어르신이 불일암으로 부르셔서 길상사 주지를 하라고 하셨을 때도 싫다고 했듯이, 송광사에서 내 나이에 주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주지를 하기 싫어했어요. 주지 자리가 비면 늘 나한테 물어요." 문중 어른 등살에 떠밀려 보림사 주지를 맡은 지묵 스님은 보림결사를 선언한다. 첫째, 염불을 비롯한 모든 의식을 한글로 한다. 둘째, 음력불교를 청산하고 양력불교를 한다. 셋째, 집 짓는 불사는 하지 않고 교육불사를 하겠다. "한문불교를 청산하고,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고, 지정제일·관음제일 파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사 방향을 집짓는 데서 교육으로 돌렸어요."

그렇게 세운 장흥불교대학. 3년을 마치고 졸업한 서른일곱 사람은 염불을 다 외우고, 사식(施食)을 진행할 만큼 불교의식에 능하다. "스님은 나 혼자지만 신도들이 종을 치고 예배도 하곤 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한 번은 나갔다 들어오니, 재(齋)가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장을 봐다가 천도재를 지냈어요. 의식을 스님들 전용이라는 생각은 부처님이 부정했던 카스트 제도에서 바라본들이 하던 낡은 관습이에요." 법정 스님도 중국 사례를 들면서 출가불자는 수행에

보다 전념하고 시다림을 비롯한 의식을 제가불자들이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중국 조주 스님 절에 가니까, 펼침막이 걸렸더군요. 어떤 보살님이 법문한다고. 해인사나 송광사, 통도사에서 거사님이 법문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더구나 보살님은" 지묵 스님은 여성 불자가 포교사가 되자 바로 상당법어(上堂法語)를 시켰다. "시켜야 해요. 해인사나 운문사에서 강원을 졸업 때가 되면 법문 연습을 합니다. 신도들도 시켜야 해요. 법제사, 범통 호적에 효봉 스님이 78대에요. 우리 스승들이 79대고, 내가 80대에요. 그래서 장흥불교대학 앨범에 석문 제 81대 손이라고 해놨어요. 손이니까 법문을 해야지. 4박 5일 단기 출가도 여름에 한 번씩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심이 두텁고 실제로 자원봉사 많이 하고 열성이 대단해요. 절 살림을 돕는 중무소 보살이나 공양간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두 단기출가한 사람들이예요. 원하는 사람만 삭발을 하라고 했는데 승복을 입고 대부분 삭발을 했어요." 법정 스님도 배웠으면 반드시 깎아야한다고 일렀다. 제가제자들을 빗쟁이로 만들지 않으려는 지묵 스님 정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

부임하고 보니 빛이 9천 7백만 원에다 자동차는 압류 당했고, 오스니 빗쟁이, 전화를 받으면 빗 폭죽이었다. 공양주와 중무소 총무 한 사람 월급주면 수입, 지출이 딱 떨어져 셈이 나오지 않는데, 자동차도 찾고 빚도 다 갚았다. "지내놓고 보니까 참 회한하네요. 나는 뭘 구하는 기도 따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날마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옛날 스님을 하다가 환속한 분이 느닷없이 아들, 딸들이 남은여생을 살 돈과 수의 마련할 뎡, 장례비를 만들어줬는데, 지묵스님이 고생을 하니 수의 임은 것으로 하겠다면서 전액을 들고 왔어요. 염치없이 받아서 전기세야 뭐야 자잘하고 급한 불부터 먼저 켜요. 그 고마움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거예요." 송광사하고 군청에 구호요청을 했다. 부임만 시켜놓고 자동차 일확타 못하게 하면 어쩌느냐? 다리를 풀여줘야 일을 할 것이니 갖는다고. 송광사에서선 분담금을 한 해 동안 안 받겠다고 했다. 군청에서도 보림사는 장흥 얼굴이니

지원을 하겠다고 손을 잡아줬다. "빚도 갚아야 하고, 어찌 살까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어찌어찌해서 그 큰돈을 다 갚았으니, 돌이켜보면 신기해요. 부도나지 않으려고 산에 있는 나무고 돌이고 땅이고 뭐고 돈 될 만한 것이 있나 눈에 불을 키고 경중경중 뛰어다녔어요. 내 입으로 얘기하려니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 하하. 앞산 뒷산. 뽕 돌러서 산밖에 없는데 참나, 빗쟁이는 와 쌓고. 나중에는 배짱이 생기더라니까요. 막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풀리고 풀리기도 하겠지 하는. 1원 한 원도 미결이 없이 다 해결해버렸어요. 세상일이 쟁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구먼요." 법정 스님을 닮아서인가. 주지를 하지 않으려고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지묵 스님. 인연 따라 가지선문 천년 고찰 보림사를 맡아 홀로 일했다.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峯).

스님이라고는 주지 밖에 없는 보림사에서 돈 걱정을 비롯해 법문하라. 화장실 청소하라. 회보도 만들라. 차밭을 일구라. 뒤는 차도 팔라. 불교대학에서부터 강사까지 지지는 줄도 모르고 해낸 용공로 같은 지묵 스님. 이번 주 토요일이면 입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수행이 길어지는데 벌써 뒤로 물러나면 여생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느냐는 물음에, "자유롭게 살립니다. 법정 스님이 오래 전에 '주지가 다량 마담이네.' 그러셨어요. 그 뜻을 물랐는데. 바빠서 미처 차 대접을 못 하면 차 한 잔도 안줬다고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건방지고 하니까 바깥나들이하다가도 누가 온다고 하면 바로 돌아와야 해요. 자유로움이 출가자 본분이고, 출가가 자기 수행도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인데, 자리에 충실해도 이타가 되고 이타에 충실해도 자리가 되는 것이지.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을 보세요. 자리자체로 충실하셔서 더 큰 이타를 이루셨잖아. 하하" 자신에 충실한 자유로운 삶이 이타행이란 말씀에 빙긋 웃었더니 세상이 웃더라.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세한삼우

오늘도 폭염이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후는 쉬 사람의 심사를 건드리기 십상이다. 불쾌지수가 오르다보면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여 다툼이 일기도 한다.

요산요수(樂山藥水)라고 했던가. 산을 즐기려 해도 수목이 타들어가고 있으니 즐김 산이 왜소해져 가고 초목에 눈길을 마주하는 것조차도 안쓰럽기까지 하다. 요수 또한 그렇다. 물이 있어야 즐기려만 계곡에는 물이 마른지 오래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계곡물을 받아쓰는 연못은 개점휴업인 업소마냥 텅 빈 공간이 마치 큰 그릇 마냥 놓여있다.

이따금 먹구름이 모습을 우련하게 드러내고 있으면 합장 발원을 하게 된다. '제발 머뭇거리지 말고 수럭수럭 비를 내려 주소서. 모내기조차 못하고 있는 농심을 살피시고, 산야의 초목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니 속히 갈로의 단비를 산하대지에 흠뻑하게 내려 주소서.'

이렇게 삼복더위가 연일 심술을 부리고 있으면 그리운 벗이 생각난다. 세한삼우(歲寒三友)이다. 소나무·매화나무·대나무이다.

소나무는 어떤 나무보다도 송고하고 단정한 기운이 깃들여 있다. 서재에서 고개만 들면 싱그러운 소나무의 기상을 볼 수 있다. 도랑에 나가기만 해도 노송을 만나게 된다. 소나무에 갖추어진 노대(老)한 품격과 마주하게 되면 그 품격은 무엇에 비견할 수 있을까. 철따라 변하는 사물의 순환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 그대로 온갖 풍상을 이기고 고고한 기상을 지니고 있다. 고색창연할 때에 각별한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림옹(李笠翁)이 복송아·오얏·버들의 과수원에 있더라도 한 그루의 소나무가 없다면 젊은 자녀 가운데 앉아서 우려러 볼 만 한 준엄한 선비가 없음을 같다고 말했다.

매화나무는 가지의 모습이 낭만적인데 있다. 그 법새가 맑고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화나무는 동자가 지나고 이른 봄에 다른 꽃들 보다 앞서 필므로 화교(花魁)라 불린다. 모란은 물질적이고 매화는 정신적이라는 말도 선비의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서 연유한 듯하다. 또한 매화는 청고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복송시대 은문 시인 임화정(林和靖)은 매화를 사랑하고 학을 좋아하여 매치학자(梅妻鶴子)라고 하였다. 절강성 항주, 그가 살았던 고산(孤山)에는 문인 순례지가 되어 있다. 이 시인의 산월소매(山園小梅)라는 시에 매화의 향기와 그 모습이 풍취가 잘 묘사 되어있다.

소영횡사수청정 疎影橫斜水清淺

암향부동월황혼 暗香浮動月黃昏

대나무는 가늘고, 유순하고, 잎의 화사함이 대나무 풍취의 으뜸으로 지목된다. 매마른 대지에 죽순은 높이 솟구쳐 올랐다.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사전에나 나오는 말인 듯하다. 이 가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용을 뽐내고 있다. 가늘고 유순하다고만 치부할 일이 아닌듯하다. 인고의 세월을 감내할 줄 아는 대나무, 삭풍에도 거역할 줄 모르고 순응하며 본분을 잃지 않는 대나무가 아니던가. 도량 어느 언저리 바위 뒤쪽에 자리 잡은 대나무는 인내와 절조, 순응을 가르쳐준다.

금년 여름에 유독 세한삼우가 그리워지는 것은 비단 더위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더위만 생

소나무, 송고하고 단정한 기운 강해 매화는 맑고 청고함의 대표적 상징 대나무는 인내, 절조, 순응 가르쳐 세한삼우 보며 '정도(正道)'의 길 걷자

각한다면야 피서지로 떠나면 그만이라. 인간의 생각은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속성이 있다. 산에 있을 때의 생각과 시냇에서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듯. 그 뿐 아니라, 성인이 성장기에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 때문에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 때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도 교육 환경이 좋다는데 연유하였다.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부모의 열정을 누가 탓하랴만 지나친 면면이 사회의 이목을 끌기도 한 적이 있다. 경쟁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황폐화 시키고 만다.

인간관계의 황폐화는 무서울 정도이다. 마치 저수지의 수원이 고갈되어 거북등과 같이 짝짝 갈라져 시루떡을 한 켜 한 켜 들어 올리는 것 보다 더 심각한데. 현대인은 절경에 연연하여 매여 살고 있다. 절경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속달일 만 생기기 마련일 것이다. 반면에 정도를 고집한 사람은 속도감이 떨어지고 미련해 보이게까지 하겠지. 세한삼우를 보고 누가 미련하다고 외면하던가. 미련의 대면지는 인간의 야누스적인 심사일 뿐이다.

Advertisement for Donghai Pharmacy (동해약령사). Features a large banner with the text '동해약령사' and '해동 제일약사도량'. Below the banner, there is a description of the pharmacy's services, including a list of ingredients and a testimonial from a patient. The text mentions '피부병(아토피, 건선 등)에 관한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을 통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d lists ingredients like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Hwanggeumwipae). The text includes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and '한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It features an image of a memorial tablet and lists services such as '규격 大 / 中 / 小의 다양한 규격' and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Contact information is provided at the bottom: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폰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Advertisement for a seminar (Mangpomyeong). The text includes '망파명리 중국 단견업 선생 초청 특강' and '기존 명리의 단점 극복과 명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세계적 명리학자 단 견업 선생의 강의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It lists the date '2012년 8월 12일(일) ~ 8월 17일(금)', time '오전 10시~1시, 중식: 1시~3시, 3시~6시', and location '신설동 한국전통아카데미학원'. It also mentions a fee of 85,000 won and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 : 031)918-7550, 011-1743-0543'.